

'90년 새해의 통신정책방향

朴 成 得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1. 80년대의 성과	3. 90년도 통신정책방향
2. 통신환경변화와 정책방향	4. 맺는 말

Ⅰ 80년대의 성과

지난 80년대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부문은 미래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한 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통신매체인 전화의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대량공급을 지속함으로써 1980년에 280만 회선에 불과하던 전화시설이 지난해 말에 1,300만 회선을 넘어섰고, "1가구 1전화시대", "전국 전화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통신 선진국으로 진입시켜 아시아에서 2위, 세계에서 10위권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간의 협동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컴퓨터·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독자 개발하였고 최첨단 통신기술의 결정체인 전전자교환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여 130만 회선 이상을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수출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등 첨단 신규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울올림픽대회의 완벽한 통신·전산 운영으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80년대 우리나라의 통신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Ⅱ 통신환경변화와 정책방향

그러나, 최근들어 통신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수요행태가 다양화·고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공사의 민영화와 더불어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다각화 노력과 함께 국내·외로부터의 통신시장 참여욕구의 분출등 통신사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신부는 이처럼 급변하는 주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80년대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우리나라 통신이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90년대에는 통신사업체제의 개편,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정보통신사업의 육성, 정보문화의 확산과 지역정보화의 촉진, 그리고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통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보이용의 대중화와 정보통신의 고도화, 국가사회의 전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보사회를 조기에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3] 90년도 통신정책방향

특히, 금년은 통신환경변화의 적극대응, 통신기술의 고도화와 통신산업 육성, 복지통신의 확대, 국가정보화의 촉진, 그리고 국제협력활동 강화와 국제통신외교의 적극추진에 통신정책의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첫째, 주위 통신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2000년대를 향한 통신사업중 장기발전계획"을 보완·발전시켜 21세기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장기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 구현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공사의 정부지분의 주식을 연차적으로 국민주로 보급하여 통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시켜 공기업경영에 민간부분의 활력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공사의 민영화를 계기로 민간부분의 통신사업 참여 여망에 부응하고 통신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통신사업체제의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에서는 통신시장 속성을 고려한 통신사업부분별 경쟁도입방안과 통신사업자의 구조 조정방안, 그밖에 자가통신 및 구내통신의 이용개선과 회선이용의 자유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82년에 가입전화망(PSTN)의 개방으로 PSTN에 FAX와 DATA단말기의 접속이 허용되

고 85년 이후 4차에 걸친 회선사용제도의 완화로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사업자간의 설비접속 및 공동사용승인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급신장하는 공중정보통신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신프로토콜의 수용등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중정보통신망용 교환기와 다중화장비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정보이용에 있어서 지역간의 격차를 점차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현 통신정책 관련조직을 정책개발 및 조정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등 기존 통신관련 법령을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체계를 갖추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통신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통신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혁명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통신·반도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로서 이 기술의 자립은 정보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기본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교환기, 4M DRAM 기술개발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국내 기술축적은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는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체신부에서는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미래 통신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첨단기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약 1,330억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입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계·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용량전자교환기·반도체·ISDN기술·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개발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TDX-10 실용시제품에 대한 상용시험, 16M DRAM 설계 및 실험시제품 개

발, TDX-1A 및 1B에 ISDN 기능 구현,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목표시스템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첨단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통신공사의 정부배당금과 통신사업자의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94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하여 첨단 통신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 연구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전문화·다원화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술 종합연구소와 각 통신사업자의 연구소로 연구개발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기관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내 통신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통신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하여 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한 관련기관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신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통신용부품 및 기기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금융·기술 및 판로지원을 통하여 핵심통신부품 및 기기의 국산화를 촉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산전전자교환기(TDX)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및 대 개발도상국 기술협력강화로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TDX에 대한 국제 신뢰도(信認度)를 높여 해외판로를 개척함으로써 통신시스템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발돋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통신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대통화시분제의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 나가는 한편,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별 요금체계를 지향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방안으로서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 차량전화요금과 전용회선요금 수준을 조정하고 그밖에 정보이용확장화를 위한 요금감감제도 도입, TELEX 및 선박무선시외통화의 전국 단일요금제 시행, 각종 설비비 제도의 보완 및 조정등을 통하

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통신을 통한 경제활동지원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신시설의 현대화와 이용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시설면에서는 금년에도 278만회선의 전자식 교환시설을 공급하여 금년말에는 총 시설수가 1,500만회선을 넘게 되며, 36,000대의 공중전화를 공급하여 모든 농·어촌 행정리·동에 공중전화가 1대 이상씩 설치됩니다.

또한, 국제 및 장거리 전송시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육지-재수간 해저 광케이블을 90년 2월에 완공하고 원활한 해상통신을 위한 국제해상위성통신(INMARSAT)용 해안지구국을 90년내에 준공하여 해운 대국으로서의 통신지원도 진일보 시킬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면에서는 착신과금서비스, 전자선화번호안내 DB서비스가 시험 제공되며, 음성생활정보서비스지역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디지털위성회선서비스(IFS), PC-SERVE 서비스 등이 새로 상용화됩니다.

그밖에 대형건물 중심으로 OA·LAN 등을 구축하여 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ISDN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명통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점·분방구 등에서 자기소유의 FAX나 PC단말기를 다른 사람이 빌려 볼 수 있도록 하여 FAX 및 PC이용의 급증추세에 부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행정·산업·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정보혁명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보이용의 대중화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간·계층간에 정보이용의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의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 도입기종(주전산기 I)의 3차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독자기종(주전산기 II)의 H/W 실험시제품을 제작하며 첨단기종(주전산기 III)의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고품
질의 전산망 통신회선 공급, 우선 추진사업 소요자
급조달과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PC 1,000만대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전화
가입자가 PC를 이용하여 114전화번호 DB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96년까지 공공부분에서 300만대
의 PC를 공급하고, 공중통신망(PSTN)에 PC
를 접속하여 학습에 필요한 DB를 직접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 산수과목등 학습보조
용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컴퓨터 교육지원을 위하여 96
년까지 640억원 규모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정보문화의 교육·홍보, 첨단서
비스의 이용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정보센터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정보사회의 전진기지
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밖에 정보문화확산사업을 본격화 하여 일반
대중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정보통신이용 능력
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
하고 국내 통신발전을 해외로 홍보하여 TDX
수출촉진등 국내 통신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
하는등 국제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기술협
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신망 설계
지원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도국 통신기술지
원을 강화하고, 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산업
계·연구소가 공동으로 CCITT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기술을 국내에 조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회의의 국내개최, 국제기구활
동의 적극참여등을 통하여 국내통신발전을 해외
에 홍보하고 대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국제적인 통신시장 개방추세, EC시장의
통합추진, 미국의 무역적자 누중에 따른 국내 통신
분야 개방압력의 가중등 대외적인 통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중
인 한·미통신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아울
러 90년에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통신서비스에
대비한 우리나라 입장을 정립하여 UR협상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4 맺는말

지난 19세기말에 산업혁명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나라마저 잃고 후진국으로 전락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분수령이 될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각계 각층
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80년대에 이룩하여 놓은 전국전화의 자동
화와 1가구 1전화의 실현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통신수단의 보급과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시켜 정보
사회의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를 10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
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朴成得

저자약력

- 1966년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1968년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 1977년 8월 ~ 1978년 9월 : 김릉전신전화국 건설국장
- 1984년 2월 ~ 1987년 8월 : 중앙전파감시소장
- 1987년 8월 ~ 현재 :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용어해설

- **요해도(intelligibility)** : 통화 품질의 측정 척도로서 문장, 단어, 어구 등을 송화하여 그로부터 정확하게 수신되는 청취율(%)을 표시한다. 직접적인 통화 품질의 척도라는 장점은 있으나 측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요해도와 명료도의 상관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 간단히 측정할 수도 있다.
- **요해성 누화(intelligibility crosstalk)** : 누화음이 요해성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요해성 누화는 통화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격을 제정해서 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용접선(copper weld wire)** : 강철선의 주위에 구리로 용접한 선으로서 구리의 고도전율과 강철의 고장력 강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주의 간격이 긴 곳이나 설해(雪害)가 많은 장소에서 주로 사용된다.
- **우선 가입자(priority line)** : 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의 상황 발생시 일반호는 중지되고 이 기능을 가진 가입자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또한 평상시 통화량이 폭주하여 일반호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기능을 보유한 가입자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 처리된다.
- **우주 공학(space technology)** : 로켓이나 인공 위성, 달, 행성 탐사 기 등의 우주 비행체를 설계, 제조, 발사, 추적, 관제하는 기술과 그에 관련되는 학문이다. 또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군용 미사일도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자 공학, 정밀 공학, 금속 재료 공학 등의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의료용 전자 기기,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민생 기기 분야의 응용에 유용하다.